다시 오월…광주서 부르는 시대의 노래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오늘부터 한달간 5·18광장
전국 뮤지션들 다양한 공연
일본 합창단 참여 평화 노래
4·3 등 아픈 상처 치유도

지난해 열린 '오월의 노래' 공연 모습.

"악여정통(樂與政通), 노래를 들으면 시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광주를 찾아와 민주광장에서 시대의 진실을 노래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통해 오월의 참 모습을, 아픈 상처를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1일부터 31일까지(12일, 17일, 21일, 26일 제외) 총 27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오월의 노래'는 1980년 이후 전국의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독재와 폭압에 저항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며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지난 2015년 5월 다시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오월의 노래'는 매년 5월 열리는 다양한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 중 포문을 여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원중 (사)오월음악 이사장은 "1980년 5월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1987년 6월 항쟁을 만들고 2016~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이 땅의 평화를 위해 38년째 흘러가고 있다"며 "그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위대하고 아픈 여정을 노래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공연은 5월 한 달 동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30분까지 60분 동안 진행된다. 민중가수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아카펠라, 뮤지컬, 국악,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공연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과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입상팀인 모리슨호텔과 투스토리를 비롯해 김가영, 손현숙, 씨쏘뮤지컬컴퍼니, 꽃님이밴드, 등걸, 강형원, 권준희 등 광주의 5월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음악인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1일 개막공연에는 강숙향, 강평근, 강형원, 꽃님이, 이근철, 정영훈 등으로 꾸려진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한 달 동안 이어질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3일 류의남 밴드가 '통일의 바람', '평화를 원해'를 선보일 예정이며 우물안개구리는 4일 '살아살아가다보니', '광주의 밤'을 무대에 올린다. 6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되새기는 뮤지컬 '비망'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9일에는 삶과 노동, 사람을 노래하는 밴드 '국도 1호선'이 참여하고, 16일에는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출신인 강형원이 무대를 꾸민다.

25일에는 '이등병의 편지'의 원작자 김현성이 참여할 예정이다.

31일 마지막 무대는 푸른솔시민합창단과 희망새의 노래로 마무리한다.

(사)오월음악 관계자는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을 비롯해 대구 2·2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전 세계 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촛불집회에 이르는 우리 시대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들이 광주의 오월정신과 어우러져 대중들과 공감하고 치유하며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월의 노래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maymusicbusk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시민에 '깡충' 뛰어든 광주산 창극…관객들 연신 '얼쑤'

30주년 시립창극단 '수궁가'

'수궁가' 공연 모습.

"처음으로 창극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전통창극이라고 해서 지루하고 어려울까봐 걱정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재미있고 눈을 뗄 수 없이 볼거리도 많아 즐거웠습니다."(박일우·33·광주시 북구 운암동)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창극단이 지난 27일~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52회 정기공연 전통창극 '수궁가'를 선보였다.

공연은 이틀 연속 매진됐으며 2500여 관객이 운집해 성황을 이룬 이번 '수궁가'는 국내 최초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수궁가'를 시립창극단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올린 작품이다.

수궁가는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살아나온다는 내용이다. 충(忠)이라는 교훈과 조선 후기 사회상을 빗댄 풍자와 재치 가득한 민중적 유쾌함이 담긴 공연으로 공연 내내 관객들의 박수와 웃음이 가득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유일하게 우화(寓話)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해 해학적인 요소가 두드러졌으며 판소리, 창극, 국악, 무용, 모듬북으로 표현되는 예술적 형식미와 함께 실제 용궁을 방불케 하는 연출과 효과, 화려한 의상 등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았다.

유영애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도창으로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관객석 곳곳에서는 '얼쑤', '어허', '좋다'와 같은 감탄사와 추임새들이 터져나왔다.

또 용궁과 숲 속을 배경으로 한 무대는 이질감이 없어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으며 멧돼지, 여우, 호랑이, 그리고 방게, 잉어, 조개 역을 맡은 출연자들은 캐릭터의 개성을 살려 분장하고 연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등장인물들의 대사에는 고어와 어려운 단어들이 거의 없었고 쉽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대사를 구성해 관객들이 극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중간 자라와 토끼가 용궁으로 가는 도중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을 지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공연장을 찾은 박서영(38·주부)씨는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전통 공연을 봤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손뼉치며 공연을 즐겼다"며 "우리 전통 예술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였나 하고 감탄했다"고 말했다.

유영애 광주시립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시립창극단이 시민들을 향해 한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한국적 예술과 창의성을 담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앞으로도 많은 기대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창극단은 광주의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건립 300주년 공연에 초청돼 3일~4일 샌안토니오시 건립의 날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그게 아닌데' 6일까지…'너에게로 간다' 18~27일

푸른연극마을이 '봄, 봄, 봄을 보도다'라는 주제로 한 블랙코미디 연극 '그게 아닌데'와 광주민중항쟁 38주년기념 연극 '너에게로 간다'를 선보인다.

연극 '그게 아닌데'는 코끼리 조련사를 중심으로 동물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통의 부재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이다. 연극은 오는 6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린다.

연극은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가 선거 유세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하는 형사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조련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벌어진 '동물원 코끼리 대탈출'사건을 모티브로 대화와 소통의 부재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경미 작가의 작품을 오성완이 연출했으며 박범진, 오성완, 정이형, 안진영, 김장훈 등이 출연한다.

연극 '너에게로 간다'(원제 한 남자)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4시 씨어터연바람에서 만날 수 있다.

푸른연극마을의 대표적인 5월 연극인 이 작품은 구둣방을 운영하는 한 독거노인이 20억이라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조사원이 보험계약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내용을 담았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노인은 1980년 어느 날 새벽 그가 살던 도시의 거리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이후로 가족을 잃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채 살아간다.

이당금이 연출을 맡았으며 오성완과 최창우, 박범진, 김소리 등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2만원. 문의 062-226-2446, 010-6610-052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만년의 허전함 별빛이 위로하네

손형섭 새 시집 '별빛'

대학교수로 정년퇴임을 한 뒤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삶의 진실을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낸 늦깎이 시인이 있다. 주인공은 목포대 명예교수인 손형섭(77) 시인.

이번에 손 시인이 펴낸 '별빛'(문화예술사·사진)은 모두 10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일상의 삶을 관조적 시선으로 풀어낸 시들은 간결하면서도 담백하다. 이일기 시인이 '아름다운 거짓보다 서툰 진실이 더 큰 감동을 준다'고 밝힌 평처럼 작품에는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시인의 일상이 담겨 있다.

"밤하늘에 별빛이// 가슴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지난 날 치열하게 살았던/ 수많은 날들의 향수가/ 가슴속에 차올라 넘쳐흐른다.// 많은 시간을 맴돌다가/ 먼 길 달려온 지친 영혼을/ 위로하듯 별빛이 쓸쓸한/ 내 영혼을 일깨워준다."

표제시 '별빛'은 시인의 작품세계를 집약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대학 교수로 학교 현장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던 지난날을 밤하늘의 별빛에 빗대 관조한다. 인생 만년에 접어든 작금에 바라보는 '별빛'은 쓸쓸함과 허허로움을 다독여주는 기제다.

한편 화순 출신 손 시인은 목포대학교 교수와 경영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문학예술' 시 부문과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